

HEADLINE NEWS

노인주거지역을 용도지구에 포함 (조지아주: 콰 카운티)

미국 조지아주 콰(Cobb) 카운티는 州에서 처음으로 55세 이상 노년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급하기 위해 노인주거지역 (Residential Senior Living Zone)을 용도지구 에 포함시켰다. 노인주거지역은 주요 간선 도로나 대중교통수단과 가까운 곳에 지정되며, 전통적인 단독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이 보급된다.

개발되는 주택들은 노인들의 주거특성을 반영한 건축디자인이 도입되어, 계단이 거의 없고 휠체어를 타고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노인층을 위한 용도지구가 도입된 배경은 카운티 내 노년인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 수의 빠른 증가 때문이다.

(Atlanta Journal-Constitution, 2005. 5. 26, "A Welcome Gray Area")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공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엄격한 개발영향부담금 제도 도입 (애리조나주: 마라나市)
- ② 홍콩 디즈니랜드 개장으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 기대 홍콩

도시환경

- ③ 전자장비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법안 제출 (뉴욕)
- ④ 방출물 제로형 리사이클 산업단지 조성 (기타큐슈市)
- ⑤ 소규모 근린공원의 관리와 투자 촉구 (뉴욕)

도시교통

- ⑥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휴대폰 위치정보 활용방안 강구 (버지니아주)
- ⑦ 추돌사고 경고 센서가 설치된 버스 운행 (피츠버그)
- ⑧ 교통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자전거도로 안내정보 제공 (샌프란시스코)

사회복지·문화

- 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의 리셉션 마련 (샌디에이고)
- ⑩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시민활동추진기금 적립 요코하마
- ⑪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확충 및 개선 추진 (시카고)

행·재정

- ⑫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체에 자금 지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뉴 하노버 카운티)
- ⑬ 공공서비스 평가를 위한 시민설문조사 실시 (오스틴)

① 공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엄격한 개발영향부담금 제도 도입 (애리조나주: 마라나市)

미국 애리조나주 마라나(Marana)市는 최근 공원과 인프라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엄격한 개발영향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자들은 주택 1채당 2,884달러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마라나市에서 지정한 교통혜택지역에 주택을 개발할 경우 주택 1채당 5,941달러의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주택과 더불어 공원과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경우에는 개발영향부담금 징수에서 제외된다. 마라나市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1억 8천3백만 달러, 공원 확충을 위한 9천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Northwest Explorer, 2005. 4. 13, "Marana Town Council Adopts Strict Impact Fee Ordinances")

② 홍콩 디즈니랜드 개장으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 기대 (홍콩)

중국 홍콩市는 아시아에서 일본 東京에 이어 두번째로 디즈니랜드를 개장하게 된다. 2005년 9월에 개장하게 될 새로운 디즈니랜드의 위치는 홍콩 외곽에 있는 란타오(Lantau)섬이며, 310에이크의 토지에 현재 개발이 한창이다. 디즈니랜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수천 개의 호텔과 서비스시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디즈니랜드를 잇는 지하철 건설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홍콩市는 홍콩을 관광과 여가를 위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디즈니랜드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디즈니랜드 개장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의 놀이공원들이 디즈니랜드와 보완관계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www.allheadlinenews.com/articles/2233573854)

③ 전자장비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법안 제출 (뉴욕)

미국 뉴욕시 도시위원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자장비 쓰레기와 여기서 나오는 중금속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장비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기기 제조업자들은 2008년까지 회사가 생산해온 전자장비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계획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2010년까지 전자장비 쓰레기의 30% 이상을 수거해야 한다. 현재 뉴욕시의 전자장비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약 1%이지만, 급변하는 기술발달로 인해 전자장비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 전통적인 컴퓨터 모니터 1대에 4파운드의 납이 들어 있는 등, 전자장비 쓰레기는 인체에 유해한 납, 수은 등 중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연방정부 환경청은 중금속 오염의 70%가 전자장비 쓰레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2005. 5. 25, "Afterlife for Old Computer is Envisioned in Council Bill")

④ 방출물 제로형 리사이클 산업단지 조성 (기타큐슈시)

일본 기타큐슈(北九州) 에코타운에 건설한 '복합중핵시설'은 에코타운 기업의 리사이클 잔재를 모아서 재자원화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발전시켜 단지 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 시설로 에코타운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방출물 제로형 리사이클 산업단지가 되었다. 이 시설은 가스화 용융(熔融) 설비와 고효율발전설비를 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연소에 의해 에너지가 추출되고 용융처리를 통해 금속과 슬래그로 재자원화할 수 있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527c6c2701u27.html)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소규모 근린공원의 관리와 투자 촉구 (뉴욕)

미국 뉴욕시의 비영리단체인 ‘공원을 사랑하는 뉴욕시민모임’은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원에 가려 소외된 소규모 공원에 대한 유지 보수와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시 51개 구역에 산재한 공원들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소규모 근린공원들은 연간 1에이크당 평균 5,142달러를 유지 보수 명목으로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반면, 중심공원인 센트럴파크와 브란트(Bryant) 파크는 연간 1에이크당 16,125달러, 324,125달러를 각각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욕시는 공원시설에 드는 투자비용이 1인당 25달러로, 로스앤젤레스(34달러), 워싱턴 D.C.(64달러), 시카고(108달러), 시애틀(145달러) 등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day, 2005. 5. 26, “Time to Think Small”)

6]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휴대폰 위치정보 활용방안 강구 (버지니아주)

미국의 버지니아주 교통부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휴대폰이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를 보낸다는 점에 착안하여 휴대폰의 이동속도를 통해 차량의 이동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법은 도로상의 감지기과 같은 고정시설물에 의한 교통자료 수집방법보다 설치, 운영 및 관리비 측면에서 저렴하며, 보다 넓은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교통부는 우선 약 2주간의 시험기간 동안 휴대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home.hamptonroads.com/stories/story.cfm?story=85613&ran=195303)

7] 추돌사고 경고 센서가 설치된 버스 운행 (피츠버그)

미국 피츠버그市에서는 추돌사고 경고 센서가 장착된 버스의 운행이 최근 시작되었다. 이러한 센서가 실제로 버스에 장착되어 운행되는 사례는 미국에서는 처음이다. 이 센서는 버스 주위에 다른 차량 등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경우 경고음과 경고등을 작동시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센서의 도입으로 버스의 안전 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市교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우선 30대의 버스에 한해 이 센서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2006년에 30대의 버스에 추가로 장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센서의 도입을 위해 관계당국은 2001년부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pittsburghlive.com/x/tribune-review/trib/pittsburgh/s_325578.html)

8] 교통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자전거도로 안내정보 제공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 지역의 교통계획을 담당하는 MTC(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는 최근 기존의 교통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511 BikeMapper'라고 불리는 이 웹사이트는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 지역 내 모든 자전거도로의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준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위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전거도로의 경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전거타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자전거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약 4,800km에 이르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www.pnnewswire.com/cgi-bin/stories.pl?ACCT=109&STORY=/www/story/04-19-2005/0003436026&EDATE=)

9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의 리셉션 마련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市는 커뮤니티서비스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을 위한 감사의 자리를 2005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마련하고, 박물관, 야구경기장, 지역의 주요 관광지 등의 입장권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증정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샌디에이고 지역사회와 市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市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70만 시간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했다. 미국 평균 자원봉사활동의 화폐가치인 시간당 17.19달러에 근거하면, 샌디에이고의 자원봉사자 서비스는 1천2백만 달러에 해당한다. 샌디에이고市의 자원봉사자들은 시민위원회부터 해안가 청소, 공공도서관의 교양프로그램 강사, 어르신 순찰대, 낙서 제거, 청소년스포츠 강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자원봉사프로그램에는 개인과 단체,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sandiego.gov/press/050401.shtml)

10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시민활동추진기금 적립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많은 시민활동단체가 복지와 국제교류,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싶거나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시민활동추진기금'이다. 이 기금은 시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적립하여 미리 등록된 NPO법인 등의 공익적 활동에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단체의 지원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 기금의 특징은 지원하고 싶은 활동분야와 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금을 기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기부금 공제 등 세제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5/001-1.html)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④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확충 및 개선 추진 (시카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리처드 델리 시장의 주도로 커뮤니티 재활성화에 있어 학교, 도서관, 공원,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델리 시장은 특히, 1995년 시카고 시민들을 설득하여 공립학교 신축과 개선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세금 징수(안)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118개의 학교와 44개의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거나 개선하였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온 100개의 기존 놀이공원을 개선하여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원으로 재조성하였다. 또한 범죄, 빈곤, 실업 등이 교육시스템과 공공서비스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개혁운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과 교사 총원 등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www.planningreport.com/article/1079)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체에 자금 지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뉴 하노버 카운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뉴 하노버(New Hanover) 카운티 정부는 기업체의 지속적인 지역 내 사업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4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금 지원은 현재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2개의 기업체가 사업장의 이전 없이 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설비 등을 확충할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카운티 정부는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건전한 기업을 지역 내에 잔류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직접적으로는 자금 지원액 이상의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ww.starnewsonline.com/apps/pbcs.dll/article?AID=200550516024&source=email)

미국 공공서비스 평가를 위한 시민설문조사 실시 (오스틴)

미국 오스틴시는 약 1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 6월 10일까지 시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오스틴시는 공공서비스 전달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시민응급안전대응, 교통, 공원·여가, 도서관서비스, 청소서비스, 자전거이용 환경 등이다. 이번 시민설문조사는市당국과 시민들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먼저市당국에게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중요한 수단을 마련하게 되며, 시민들에게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행정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市는 이 시민설문조사를 위해 국립공공혁신센터에서 3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ci.austin.tx.us/news/2005/citizensurvey_2005.htm)